

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

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물의 순도와 부드러움으로 유명한 시라카미 산지 산들의 고지대에서 발원하여 물이 더할 나위 없이 맑다. 두 강은 후지사토마치 중심부에서 합류한다. 그곳에서 노시로시까지 남하해 요네시로강과 합류하여 일본해(한국 동해)로 흘러 들어간다.

길이 56.5km 에 달하는 후지코토강의 원류는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 바로 바깥쪽에 있는 후지사토마치 북쪽의 외봉우리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(해발고도 1,158m)에 있다. 수많은 작은 지류가 후지코토강으로 흘러가 다이라 계곡을 지나 후지사토마치의 평지로 흘러 들어간다.

길이 36km 의 가스게강은 후타쓰모리산(해발고도 1,086m)의 산복사면에서 발원한다. 가스게강은 아키타현에서 유일하게 유역 전체가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 내에 있는 하천이다. 가스게강은 한때 자유롭게 마을로 흘러 들어갔지만, 1970 년 후지사토 북부에 스바리 댐이 건설되면서 강물의 흐름이 제한되었다. 이에 따라 댐의 상류에서는 좁은 골짜기가 물로 채워졌고, 현재의 스바리호가 생겨났다.

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수질이 높고 바다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회유어이자 일본어로 아유라고 불리는 은어의 서식지로 유명하다. 두 강 모두 건강한 은어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지만, 스바리 댐이 생기면서 가스게강의 은어 서식지는 강 하류로 한정되었다.

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곤들매기와 산천어 낚시로도 유명하다. 두 강 모두 입어 허가가 필요하며, 인근 낚시 가게나 상점 등에서 받을 수 있다.

또한 두 강 모두 인기 있는 ‘계곡 트레킹’ 명소이다. 계곡 트레킹은 따뜻한 계절의 액티비티이며 하이커들은 강바닥을 따라 걸으며 계곡을 횡단한다. 길 없는 길을 가다 보면 과거 사람들이 시라카미 산지의 산들을 강과 개울을 이용해 이동하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다.